

단 신

영국에서의 직업성 호흡기 질환

이 경 종

1989년 1월에 영국에서 직업성 호흡기질환의 감시 (Surveillance of Work Related and Occupational Respiratory Disease, SWORD) 프로그램의 안전보건국의 후원으로 영국 정부 학회의 산업의학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주연구자인 Meredith SK, Talyer VM, McDonald JC는 국가 심장 및 폐 연구소의 역학부에 근무하는 학자들이었으며, 이들의 연구결과가 1991년도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Medicine 3월호에 게재되었다.

영국에서는 여러 해 동안 공공보건기관 및 병원 실험실에서 비공식적으로 Public Health Laboratory Service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결과가 매주 분석되어 전염병 통제에 크게 성공하여 왔다.

이러한 생각을 산업보건분야에 적용하려 하였다. 1987년 영국 흉부학회와 산업의학회가 직업성 호흡기 질환이 새로 발생하는 예를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

보건안전국에서 이 계획을 1989-1991년까지 3년동안 후원하기로 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1) 직업성 호흡기 질환의 발생을 감시, 2) 조기진단과 연구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보건문제를 통제하여, 3) feedback 및 참여자들에 정보를 빨리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1988년말 영국 흉부학회와 산업의학회의 모든 회원에게 이 연구에 참여를 권하는 편지를 써서 이 연구에 찬동한 호흡기 전문의사 354명과 직업병 의사 361명을 멤버로 얻었다.

이 멤버들에 의하여 매달 3개월, 6개월 또는 1년에 한번씩 보고를 받아 자료를 통계분석하여 천식이 554명 (26.4%)으로 가장 많았

고, 이는 인구 백만명당 22명에 해당되었다.

천식 이외에 악성종피종 340예 (16.2%), 진폐증 322예 (15.3%), 심장 관련 질환이 217예 (10.3%), 알레르기성 폐포염 133예 (6.3%), 감염성 질환 100예 (4.8%), 흡입성 재해 72예 (3.4%) 등이 있었다.

천식의 원인으로서는 이 연구에서 조사된 것은 Isocyanate가 22%로 가장 많았고 밀가루 및 곡물 먼지 (8%), 목분진 (6%), 남뿔 고정시 흡의 유출 (6%)등 순이었다.

섬유화된 폐암의 원인으로서는 석면이 대부분 (65%)을 차지하였고, 종피종의 원인도 대부분 석면이 원인이었다. (87%).

진폐증의 원인으로서는 석면이 58%, 석탄 20%, 규소가 13%를 점유하고 있었다.

- 흡입성 재해 중에는 가장 많았던 원인이 염소 (22%), 기타화학물질 (21%), 흡연 및 흡 (fume)

- 알레르기성 폐포염은 새 (58%), 진균류 (17%)등이 많았다.

- 감염증의 원인은 감기 비슷한 질환 (35%), 리켓치아 (23%), 레지오텔라증 (12%) 등이었다.

조사된 환자들은 84%가 남자였는데 알레르기성 폐포염이나 천식을 가진 사람들은 여자가 29%나 되었다.

직업성 천식의 발생률을 직업별로 보면 분무도장업이 639/백만/년이었고, 화학공정 근로자가 424/백만/년, 플라스틱 제조 및 가공업, 제과업이 각각 409/백만/년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일반인구 집단에 비하여 직업성 천식위험이 5-30배나 되었다.

석면폐증과 가장 관련이 많은 직업은 배외 갑판근로자, 보일러공, 배관공과 열관리 기사, 건축근로자, 전기공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 석면폐증과 고위험산업이 편재되어 있는 것과 확인과 보고의 차이가 그 원인이라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 연구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분석적인 결과를 제시하는데 미흡하지만 직업성 호흡기질환의 기초적인 자료로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